

## 이탈리아에서의 나의 삶의 기억: 파스카의 여정

내가 성경 안에서 가장 좋아하고, 평소에도 삶 안에서 자주 묵상하는 성경구절이 있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탈출 14,13) 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나의 구원을 위한 표징을 기다리며 이탈리아에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나는 2월에 도착해서 8개월을 머물렀다. 이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 바오로 가족 100주년 기념 성지순례, 바를레따 본당에서의 사목체험, 알바니아 방문 등의 기회를 가졌고, 그 동안 각국의 많은 빠스또렐라를 만났으며, 기도 안에서 영적 작업을 하였다. 이 체험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비록 처음부터 기쁘고 감사하게 매 순간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나의 파스카 체험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로마에서 한 달 여간의 이탈리아 언어코스와 바오로 가족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탈리아 남부의 바를레따 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빠스또렐레의 공동체가 있는, San Giovanni Apostolo 본당 공동체에서 살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나의 삶은 초기에 매우 어려웠다. 이탈리아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 외에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해하고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한국과 다른 문화들과 마주 할 때마다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공동체 생활도 기쁘지 않았다.

기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내 마음은 언어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닫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통해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의 감정들, 생각들을 빠짐 없이 다 들여다보게 되었고, 말씀과 함께 기도 안에서 감정과 생각들을 식별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나의 두려움의 뿌리는 언어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닌, 바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사랑의 부족에 있음을 보게 되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고 노력할 수 있었다.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고 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 이 후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실 가끔은 다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충전해야 하는

때임을 알기에 기도 안에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나의 이 내적체험과 더불어 오랫동안 마음 안에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이태리와 알바니아에서 만났던 우리 수녀님들과 San Giovanni Apostolo 본당공동체 식구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기쁨임을 우리 수녀님들과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우리 빠스또렐레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했던 체험을 통해, 전세계의 빠스또렐레들에게 더 깊은 자매애를 느끼며 기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체 생활의 기쁨과 희망을 나의 공동체로 돌아가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말이 서투른 나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기도했던 바를레따의 본당 식구들을 떠올리며 참으로 감사한마음을 가진다, 이들을 떠올리며 바로 사도가 필리피 공동체신자들을 위해 바쳤던 기도를 바친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필리1, 3-4)

그리고 내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한국의 모든 수녀님들께도 감사 드리며, 여기서충전한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마음에 채워주신 용기를 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의 공동체와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느낀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안으로 용기있게, 기쁘게 발을 내딛는다. 주님과 함께...